

장애인, 5년과 비교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확인

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4만 가구 및 1천여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를 최근 밝혔다.

이 조사는 1980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00년 실시 당시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비장애인과 비교해, 열악한 상태로 나타났다.

장애 인구 수 215만명, 출현율 4.59%

금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장애 인구 수는 총 215만명으로, 장애범주확대, 장애발생요인 증가 등으로 2000년 조사에 비해 약 7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거주 형태별로는 재가 장애인은 증가(140만명→210만명)한 반면,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오히려 감소(5.1만명→4.8만명)하였으며 총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수는 167만명(05. 6월기준)으로 78%의 등록율을 보였다. 미등록 사유로는 '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' (33%)가 가장 높게 나타나 등록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장애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 출현율은 4.59%로 2000년의 3.1%보다 증가하였다.

이는 미국 19.3%, 일본 4.7% 등 외국보다 낮는데 주된 이유는 장애범주가 외국에 비해 협소하기 때문으로 향후 단계적 장애범주 확대가 요구된다.

장애인의 신체·사회적 특성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45%

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45%로 2000년

29%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인의 약 35%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.

외출빈도 조사 결과 거의매일 외출하는 비율이 2000년 59%에서 65%로 다소 향상되었으며, 외출시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55%로 조사되었다. 불편함을 느끼는 사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이 36%로 가장 높게 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(2005년 2/4분기) 302만원의 52%에 불과 (2000년의 경우 46%)했으며 장애인 가구 중(195만가구)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가구는 26만 가구(13%)로 비장애인 가구의 6.8%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15.5만원으로 조사되었다.

장애인 취업분야, 주로 단순업무에 편중

취업과 관련해서는 15세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자가 78만명(경제활동참가율 38%)으로 실업자 비율은 미취업 원인 고려

시 23.1%에 달한다. 미취업원인으로는 '심한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(45%)'가 가장 높았고, '나이가 많아서', '적합한 직종이 없어서' 등이 뒤를 이었다.

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(28%), 농어업(19%),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(12%) 등 주로 단순업무에 편중되어있으며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 월평균 임금 258만원의 45%에 불과했다.

이외에도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전체 장애인의 72%가 소득보장(49%), 의료보장(19%), 주택보장(4%)을 들고 있었다.

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주택보장, 장애예방 등 장애인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의 제공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또 장애인계 및 관련전문가와 더불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, 조사결과와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.☎